

“소중한 인연, 아끼고 이해하세요”

‘서로 부처되기 돕는 관계’가 부부

Q 불자로서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道伴)으로서, ‘서로 부처되는 일을 돕는 관계’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전생에서부터 지중한 인연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부부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되더라도 ‘악연(惡緣)’이라는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연법을 통해 업의 고리를 풀어야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인연이 끊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점 인정하면 오해 사라져요

Q 남편(아내)의 성격을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A 이혼을 원하는 부부 대부분이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성격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시작되고, 다른 점을 인정한다면 오해는 사라집니다. 보통 남자는 자신과 상반된 성격의 사람에게 끌립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성격의 여자가 자신과 다른 조용한 성격의 남자에 대해 결혼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다른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여자는 끊임 바가지질 남근 남편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 비난 마세요

Q 이혼을 고려중인데 아이들 문제가...

A 일단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서 이혼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겠지만, 5년 후나 10년 후 내 모습이 어떨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고 말지만 공동의 책임인

가사상담원 담고 스님에게 듣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이혼예방법

12년전건. 지난 한해 국내 이혼 건수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이혼숙려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나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할 경우 상담을 거쳐야 하는 제도다. 협의이혼 대상자들을 상담하는 가사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고 스님에게 행복한 가정생활과 이혼 예방법을 들어봤다. 여수령 기자



삼화=박구원

아이의 양육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사이가 나쁠 지라도 아이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엄마상(像), 아빠상을 정립하게 돼 자녀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감정으로 이혼하면 후회

Q 이혼을 할 때도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이혼상담은 단순히 이혼을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상담을 실시한 후 이혼취하율이 높아진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많은 부부들이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물론 상습적인 폭력이나 결실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이혼으로 새로운 생활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면 성급한 이혼으로 후회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 깨야

Q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신중한 결혼’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신랑, 신부는 상대방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로서의 결혼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해석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가 나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만 강요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결국 인연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 어떤 인연보다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행복한 가정을 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 할 수 있는 곳
- 불교상담개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 (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 대한국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3>

사찰식 백김치와 배추우거지볶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연구원은 ‘공양간’이라 불리는 작은 쪼개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회원님들은 사찰음식도 배우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때론 아픈 사연도 나누며 삶의 여정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공양간 문을 열었을 땐, 그저 서로 모여 사찰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나 나누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회원들이 모여가면서 공양간에는 새로운 음식이 가득해지면 서 ‘건강을 찾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는 알게 모르게 부처님 말씀과 사찰음식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물론 회원 중에는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한번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공양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점심때가 되어 함께 공양을 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별로 밥을 먹어 본 적이 없다는 그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식 백김치 맛이 폭 빠져 버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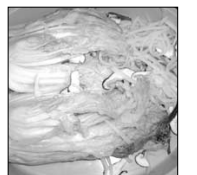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냐”는 질문에 “마늘이나 파를 넣지 않고 만들어요. 많이 드세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점심 공양을 일찍 끝내고 백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 배추 몇 포기, 사과를 사왔거든요. 그날 담근 백김치를 품에 안고 가면서 “불자는 아니지만 사찰식 백김치에 담긴 불가의 지혜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사찰음식을 사랑한 사람들’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고요.

부처님은 제가 참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찰음식은 물론 이렇게 좋은 벗도 보내주시다니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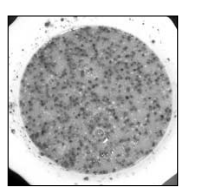
■ 만드는 법

〈사찰식 백김치〉 재료: 절인 배추 12포기, 무 1/5쪽, 표고버섯 1개, 청·홍고추 1개씩, 양념(다시마 우린물 5컵, 사과 1/4쪽, 양파즙 1작은술, 매실액기스 1작은술, 생강즙 약간, 죽염 약간, 다진 대파 약간)
① 무는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해 꼭 짜다. ② 표고버섯과 청·홍고추는 채 썬다. ③ 사과와 양파는 갈아 다른 양념과 섞어준다. ④ 표고버섯과 무, 청·홍고추를 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⑤ 분량의 재료로 양념물을 만들어 부어준다.



〈배추 우거지 볶음〉

재료: 배추우거지 1줄, 다진 청고추 1큰술, 다진 홍고추 1작은술, 양념(된장 1작은술, 채수 1컵, 들깨 약간, 죽염 약간, 들기름 약간)
① 배추 우거지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꼭 짜다. ② 분량의 재료로 양념을 만든다. ③ 양념에 우거지를 버무려 준 후 프라이팬에 볶는다. ④ 다진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마무리한다.



▶ 다음 주에는 감잎 꿀양념을 만들어 봅시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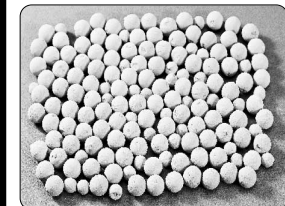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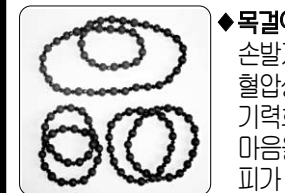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력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씩씩하게 살아납니다. 고압전,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머니에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은행석 108염주, 손목입장수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